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리나라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비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홍 다 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리나라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비교

지도 정우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홍 다 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홍다혜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 우 진 인

심사위원 김 희 진 인

심사위원 박 소 희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2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감사의 말씀

막연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논문의 전 과정을 함께 해주신 정우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한 자세로 학문에 임하라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계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박소희 교수님과 세심한 시각으로 귀한 조언을 주신 김희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문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박은철 교수님, 장성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신 통계상담실 장현수 조교님과 논문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박수정 선생님, 이환주 선생님, 최형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으로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차 례

국문요약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6

Ⅱ. 연구방법 ····· 7

1. 연구설계 ····· 7

2. 연구 대상 및 자료 ····· 10

3. 변수의 정의 ····· 12

4. 분석방법 ····· 25

Ⅲ. 연구결과 ····· 27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기술분석 ····· 27

1) 전기 노인 ····· 27

2) 후기 노인 ····· 29

2. 연구 대상의 특성별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차이: 단변수분석 ··34

1) 전기 노인 ····· 34

2) 후기 노인 ····· 3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연구 대상자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 다변수 분석·42

1) 전기 노인····· 42

2) 후기 노인····· 48

IV. 고찰····· 52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52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57

V. 결론····· 65

VI. 참고문헌····· 67

ABSTRACT····· 7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ist of Tables

Table 1. Definition of dependent variable····· 13

Table 2. Definition of control variables: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18

Table 3. Definition of control variables: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21

Table 4. Definition of control variables: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24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young-old vs old-old····· 31

Table 6. Univariable analysis: desired residential type of young-old ····· 35

Table 7. Univariable analysis: desired residential type of old-old ····· 39

Table 8. Multivariable analysis: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of young old····· 46

Table 9. Multivariable analysis: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of old-old····· 5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ist of Figures

Figure 1. Framework of the study. ····· 9

Figure 2.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sample. ····· 1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국 문 요 약

배경: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주거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노인의 삶의 질과 노인 정책의 지속성 저해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과 노인정책의 지속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 주거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전기 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연령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9,917명으로 전기 노인은 5,976명이며 후기 노인은 3,941명이다.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 및 복합표본 특성을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검정, Surve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version 9.4(SAS Institute, Cary, NC, United States)를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결과: 전기 노인의 30.4%, 후기 노인의 34.7%가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었으며,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을 모두 통제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은 공통적으로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인지기능, 주택 만족도가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관련 있었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인 군 대비 무배우자인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전기 노인의 경우 1.41(95% CI=1.01-1.06), 후기 노인은 1.34(95% CI=1.09-1.65)이었다. 인지기능이 정상인 군 대비 저하 군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전기노인의 경우 1.29(95% CI=1.12-1.48), 후기 노인은 1.29(95% CI= 1.07-1.54)이었다. 전기 노인에서만 유의했던 특성은 성별,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돌봄 제공자 유무, 생활비 부담 주체, 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주거 적합도, 외출 시 제약점이었다. 돌봄 제공자 유무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에 의존적인 전기 노인 중 돌봄 제공자가 없는 군 대비 있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54(95% CI=0.31-0.94)이었다. 후기 노인에서만 유의했던 특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 주택 소유 형태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등급 인정자 군 대비 등급외자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80(95% CI = 1.13-2.89)이었다.

결론: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연령대별 차별화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일상생활에 의존적인 전기 노인 중 돌봄 제공자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후기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주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와 인지기능 저하인 경우에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핵심단어: 전기 노인, 후기 노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정책, 주거정책, 노인실태조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50년에는 전 세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UN, 2022). 한국은 지난 2021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6.5%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Korea, 2021).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20a),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정책, 주거정책 등의 사회정책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Lee, Lee and Kim, 2019).

노년기는 신체기능, 생리적 기능 및 인지기능이 약화되어(Kang et al., 2019)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저항감과 불안감으로 환경 적응력 감소를 겪는 시기이다(Kwon et al., 2014; Park, 2011). 노인은 생활환경 범위가 축소되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거공간에서 보내기 때문에 주거정책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Han et al., 2019; Park, 2020).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준비하지 못하였다(Kang et al., 2019).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 노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83.8%의 노인이 건강 유지 시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MOHW, 2020b), 노인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Mezuk et al., 201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하는 노인의 일관된 욕구는 2007년에 시행된 주거실태조사(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7)와 2017년 노인실태조사(MOHW, 2017),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Seoul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Welfare Foundation, 202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UN은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서 노인들이 가능한 오래 본인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으며(MOHW, 2000), 이미 영국, 일본 등 해외의 여러 복지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im and Yoon, 2018; Sundström, 2018; Yim and Kim, 2021). 우리나라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공표한 이후(MOHW, 2018a)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Choi, 2019)을 발표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MOHW, 2018b).

하지만 건강 악화,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부양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인은 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Kang et al., 2019).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부작용으로 요양시설 내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노인학대가 있으며(Lim, 2021), 시설 내 높은 노인학대율(Yon et al., 2019) 및 노출 건수의 가파른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Lim, 2021). 또한,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는 자살 생각의 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Temkin-Greener et al., 2020), 요양시설 내 노인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보다 더 높은 우울증 유병률(Kim et al., 2018) 및 고립감, 외로움, 답답함과 무력감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Cha and Hur, 2021). 노인요양시설 환경에서 노인의 외로움은 사망률을 높이는 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Jansson et al., 2017), 결과적으로 시설 내 노인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노출된다(de Medeiros et al., 2020; Shin and Park, 2017).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와 같은 사회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Joo, 2019). 2008년 7월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처음으로 432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20), 누적적립금 역시 2019년 약 1.1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원에서 2020년에는 절반 이상 감소한 4,136억 원을 기록하였다(Choi, 2022).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단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든다고 평가된다(Chung, 2021).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지속성에 미치는 큰 영향을 인지하였고,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Han, Hwang and Lee, 2016; Seok and Yi, 2017).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설급여 수급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시설 이용 비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Choi, 2022).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보다 지역사회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Song and Song, 2018),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진행된 선행연구(Kang and Kang, 2005; Lee and Bae, 2004; Lee and Lee, 2008a; Lee and Lee, 2008b; Lee, 2003; Lee and Lee, 2007; Lee, 2005)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자녀 수, 거주지, 소득수준, 노인의 건강 상태, 인지 장애 등이 노인요양시설 입소 관련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이 현재와 다르고, 서비스가 선별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Han, Kang and Kwon, 2011; Song and Song, 2018). 실제로, 노인의 건강 악화 시 선호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거주 선호도가 2004년 9.2%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에는 34.2%까지 오른 바 있다(Lee,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의 특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급여 희망 관련 특성을 분석한 연구한 선행연구(Bae, 2020; Han, Hwang and Lee, 2016; Han, Kang and Kwon, 2011; Lim, 2008; Park, 2015; Seok and Yi, 2017; Song and Song, 2018)가 수행되었다. 선행논문에서는 시설 급여 희망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성별, 연령, 만성질환, 장기요양 등급, 부양자 유무, 건강보험 형태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전체 노인 인구 8,912,785명 중 953,511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7%에 불과하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등급외자는 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이므로(Han et al., 2013) 이들을 포함한 전체 노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특성 및 부양부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Choo, 2021) 노인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 등 종합적인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수행된 선행연구(Kim, Moon and Oh, 2015; Kwak, 2011; Kwon et al., 2014; Lee, 2017; Park and Ma, 2020; Park, 2019; Woo, 2017)에서는 연구 대상에 일반노인을 포함하였으며,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족 수, 종교 유무와 물리적 환경 등이 시설 거주 이용의향 관련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의 거주지가 도시 또는 농촌으로 한정되거나 연구 대상자 수가 적어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선행논문의 부족한 표본 수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Choo, 2021; Jung and Han, 2021)가 있지만, 연령에 따른 노인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여 2038년에는 후기노인(75세 이상)이 전기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보다 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Statistics Korea, 2021), 두 집단이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우울,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Choi and Ju, 2022; Hong, 2022; Jeon, 2022; Kang and Kang, 2021; Lee, 2022; Nam et al., 2019; Paik, 2018) 노인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단위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된 일반화의 어려움을 보완하였으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 주거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및 노인정책의 지속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으로 구분하여 전기·후기 노인별로 분석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에 따라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전기·후기 노인별로 분석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하여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전기·후기 노인별로 분석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 로 분류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3,181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의 32.1%이었다. 전기 노인의 30.4%, 후기 노인의 34.7%가 '노인요양시설' 에 응답하였으며,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통해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분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P=0.009).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차이를 분석한 선행논문(Lee and Lee, 2008b; Lee and Lee, 2007)이 있었지만, 노인의 종합적인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하여 노인의 종합적인 특성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노인과 관련된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돌봄 제공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생활비 부담 주체),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 우울감, 인지기능), 주거환경 특성(주택 소유 형태, 주거 적합도, 주택 만족도, 외출 시 제약점)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집단의 모든 변수에 대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하고, 각각의 변수에 따른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검정을 수행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하여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urvey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틀은 Figure 1과 같으며,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의 면제승인(승인번호 4-2022-1217)을 받아 수행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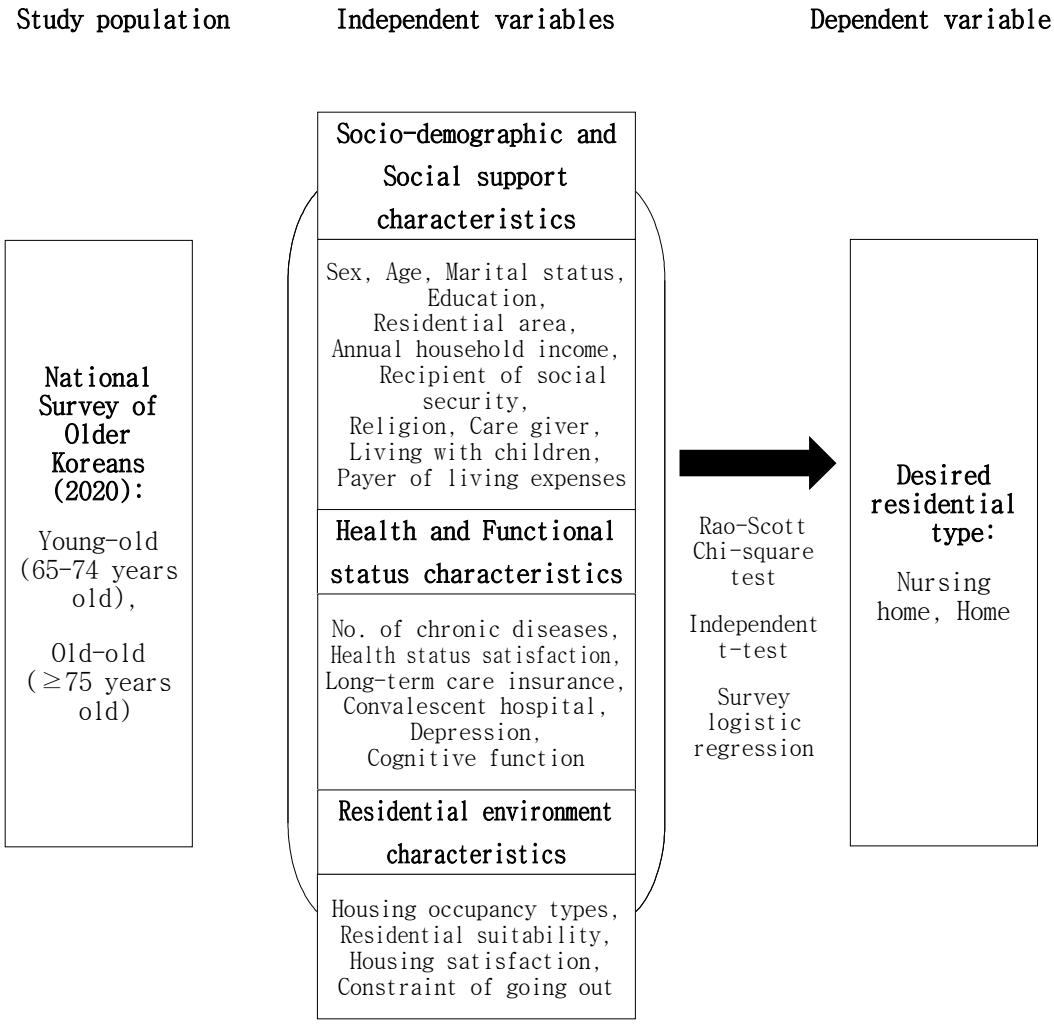

Figure 1. Frame of the stud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20년 실시된 횡단조사인 노인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되었으며, 2020년은 다섯 번째 조사에 해당한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 지표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가구일반사항,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경제활동, 가족 및 사회관계, 가족 간 도움 교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지기능 등을 포함한다.

노인실태조사 2020의 모집단은 2020년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모집단은 표본추출 틀인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기숙사, 특수시설, 섬 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969개 조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0,097명(대리응답 177명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을 17개 시도별로 층화한 후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를 수행하였다. 각 2차 층 내에서는 조사구 특성에 따라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세부 층화를 수행하였다. 1차 표본추출단위는 조사구이며 추출된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Figure 2와 같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10,097명 중 종속변수와 관련된 문항에 직접 응답하지 않은 177명과 해당 문항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 3명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9,917명(98.2%)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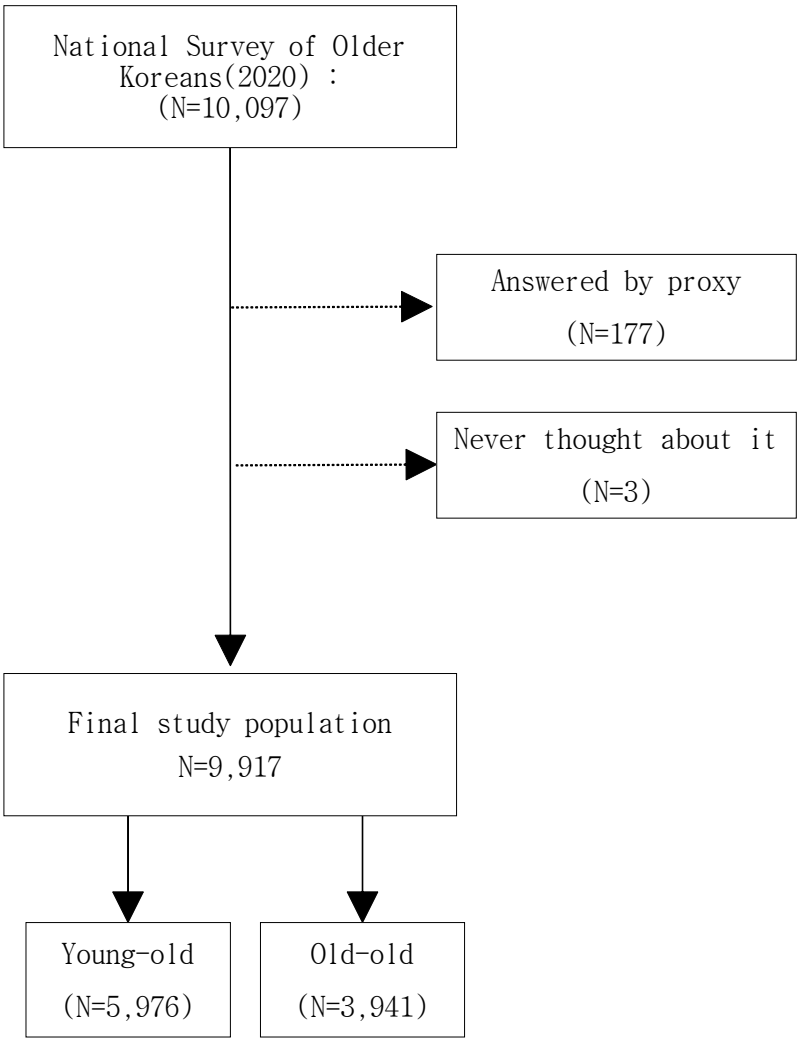

Figure 2.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sampl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변수의 정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희망거주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로 구분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본다. ‘재가’는 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한 지역사회 내 거주지로 정의하였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종속 변수 관련 문항은 “귀하께서는 만약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지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실 생각입니까?”이다. 응답 범주는 총 5가지로, 1)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2)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인척 포함)와 같이 산다(거처를 옮기거나 옮겨오도록 해서) 3)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구의 근거리로 이사하여 같이 산다 4)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한다 5)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노인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종속변수에 따라 4)를 노인요양시설로 구분하였으며, 1), 2), 3)은 재가로 구분하였다(Table 1). 5)의 세부적인 내용은 생각해본 적 없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에 따라 대상자 수를 파악한 결과, 연구 대상 9,917명 중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지로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답한 노인은 3,181명(32.1%), 재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라고 답한 노인은 6,736명(67.9%)이었다.

Table 1. Definition of dependent variable

Variable	Group
Desired residential type	1. Nursing home 2. Hom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독립변수

1)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돌봄 제공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생활비 부담 주체로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① 성별

다수의 선행연구(Choo, 2021; Han, Hwang and Lee, 2016; Jung and Han, 2021; Seok and Yi, 2017)에서 성별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남성', '여성'의 2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Seok and Yi, 2017; Song and Song, 2018)에서 성별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지만, 다른 선행논문(Han, Hwang and Lee, 2016)에서는 성별이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분석되었다.

② 연령

다수의 선행연구(Choo, 2021; Jung and Han, 2021; Park and Ma, 2020; Seok and Yi, 2017)에서 연령을 1세 단위의 연속형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연령(만 연령)을 1세 단위의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였다.

③ 혼인상태

선행연구(Choo, 2021; Jung and Han, 2021; Lini, Portella and Doring, 2016; Park, 2015)에서 배우자 존재 여부로 혼인상태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자'와 미혼·별거·이혼·사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인 ‘무배우자’의 2가지 군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④ 교육 수준

선행연구(Han, Hwang and Lee, 2016)에서는 교육 수준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 대학교로 분류하였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Jung and Han, 2021)에서는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Jung and Han, 2021)의 분류를 참조하여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4군으로 분류하였다.

⑤ 거주지역

선행연구(Jung and Han, 2021)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노인실태조사의 층화구분된 거주지역분류를 따른 선행연구(Lee et al., 2019)와 동일하게 ‘대도시(7개 특별·광역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소도시(9개도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의 동부, 세종시의 동부)’, ‘농어촌(9개 도의 읍면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의 3군으로 분류하였다.

⑥ 가구 연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 방법(가구 균등화 소득 = 가구 총소득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산정하여 4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4분위수의 결과에 따라 ‘813만 원 미만’, ‘813만 원 이상 1,386만 원 미만’, ‘1,386만 원 이상 2,435만 원 미만’, ‘2,435만 원 이상’의 4군으로 분류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⑦ 사회보장급여 여부

선행연구(Lim, 2008)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의료보호)과 일반 노인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아니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로 분류하였다.

⑧ 종교

선행논문(Kwak, 2011)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희망 의향을 종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무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의 5군으로 분류하였다.

⑨ 돌봄 제공자 유무

선행연구(Han, Kang and Kwon, 2011)에서는 돌봄 제공자 유무를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의 모든 항목에 대해 완전 자립일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분류하였으며,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부분 도움 또는 완전 도움이라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제공자 유무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해당’, ‘예’, ‘아니오’의 3군으로 분류하였다.

⑩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귀하는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선행연구(Choo, 2021)에서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바람직하다’, ‘바람직하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지 않다’의 2 군으로 분류하였다.

⑪ 생활비 부담 주체

노인과 자녀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를 통해 노인 부양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거주 의향에 노인 부양 실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노인 또는 배우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편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자녀가 보조하는 경우를 ‘노인 또는 배우자’,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전액 또는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경우를 ‘자녀’, 친척이나 사회복지 기관 등이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를 ‘기타’로 총 3군으로 분류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2. Definition of control variables: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Sex	Male; Female
Age	Age(year)
Marital status	Married; Divorced, Separated, Widowed, Unmarried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Residential area	Major city; Small and medium city; Rural area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Second lowest; Second highest; Highest
Recipient of social security	No; Yes
Religion	None; Buddhism; Protestantism; Catholicism; Other type
Care giver	No; Yes; Not-applicable
Living with children	Desirable; Undesirable
Payer of living expenses	Oneself or spouse; Children; Other typ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 우울감, 인지기능으로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① 만성질환 수

선행연구(Choo, 2021; Jung and Han, 2021; Kang and Kang, 2005; Park, 2015)에서 질병의 수를 연속형 변수 형태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만성질환 수를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② 건강상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건강상태 만족도와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관련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노인실태조사의 분류에 기초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만족함', '매우 만족함'의 5군으로 분류하였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행논문(Han, Hwang and Lee, 2016; Park, 2015; Shin, 2022; Song and Song, 2018)에서 수급자의 시설 급여 희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있음', 등급외자를 '없음'의 2 군으로 분류하였다.

④ 요양병원 입원 여부

요양병원 입원이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Youn an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Rhee, 2021)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요양병원이 입원 여부를 '있음', '없음'의 2 군으로 분류하였다.

⑤ 우울감

노인실태조사 2020에서는 노인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GDS를 사용하였으며 총점 범위는 0점에서 15점이다. 선행연구(Cho et al., 1999) 에서 제시된 절단점 기준에 따라 8점 미만일 경우 '없음', 8점 이상일 경우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⑥ 인지기능

선행논문(Han, Hwang and Lee, 2016; Han, Kang and Kwon, 2011)에서는 제한된 인지기능 항목 수로 분석하였고, 다른 선행논문(Choo, 2021; Jung and Han, 2021)에서는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점수를 연속형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 연수와 MMSE-DS 점수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Han et al., 2010) 연령, 성별, 교육연수에 따른 진단검사 의뢰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MOHW, 2020d). 진단검사 의뢰 점수 이상이면 '정상', 미만이면 '인지기능 저하군'으로 분류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3. Definition of control variables: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No. of chronic diseases	Continuous variable
Health status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Neutral; Satisfied; Very satisfied
Long-term care insurance	Yes; No
Convalescent hospital (within 1 year)	Yes; No
Depression	Yes; No
Cognitive function	Normal; Dysfunc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주거환경 특성

주택 소유 형태, 주거 적합도, 주택 만족도, 외출 시 제약점으로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① 주택 소유 형태

선행연구(Choo, 2021)에서는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Bae, 2020)에서는 무상, 월세, 전세, 자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Bae, 2020)와 동일하게 '무상', '월세', '전세', '자가'의 4군으로 분류하였다.

② 주거 적합도

선행연구(Choo, 2021)를 참고하여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일 경우 '생활하기 불편함',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을 경우 '노인을 위한 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춤'의 3군으로 분류하였다.

③ 주택 만족도

선행연구(Kwak, 2011)에서는 매우 만족함, 보통, 매우 만족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고, 또 다른 선행연구(Choo, 2021; Jung and Han, 2021)에서는 5개의 척도로 만족도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Kwak, 2011)를 참조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음과 만족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군을 '불만족', 그저 그렇다로 응답한 군을 '보통', 만족함과 매우 만족함으로 응답한 군을 '만족함'으로 분류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④ 외출 시 제약점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 등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 의향과 관계가 있음에 따라(Park, 2019)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을 조사하였다.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없음', 버스(전철)를 타고 내리거나 계단이나 경사를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동성 제약', 교통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 '대중교통 부족',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 상태, 노인을 배려하지 않은 교통 편의 시설, 인도가 없거나 차량이 많아 보행 시 위험함에 응답한 경우는 '보행 위험'으로 총 4군으로 분류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4. Definition of control variables: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Housing occupancy types	Free; Monthly rent; Lump-sum housing lease; Own house
Residential suitability	Inconvenience of living; No facilities of the elderly;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the elderly
Housing satisfaction	Dissatisfied; Neutral; Satisfied
Constraint of going out	None; Mobility constraints; Lack of public transport; Walking hazar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자료에 모수추정 가중치(f_wgt1)를 적용하였다. SAS version 9.4(SAS Institute, Cary, NC, United States)를 사용하여 모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에 대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분석 결과를 전기·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여 빈도 및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둘째, 전기·후기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의 변수들과 시설 거주 희망 여부에 대해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Rao-Scott Chi-square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p-value를 제시하였다. p-value<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전기·후기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과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수분석을 실시하였다. Survey 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과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거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형 3에서는 주거환경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다변수분석 결과는 수준별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제시하였다. 모형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C-statistic 값을 확인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판단을 위해 Hosmer-Lemeshow test 값을 확인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한 Survey logistic regression에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2 Log L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간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기술분석

노인실태조사 2020년 대상자 중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자는 총 9,917명이었다. 이 중 전기 노인(64세 이상 75세 미만)은 5,976명, 후기 노인(75세 이상)은 3,941명이었다.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 중 3,181명(32.1%)이다. 전기 노인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는 노인은 1,815명(30.4%)이었으며, 후기 노인에서는 1,366명(34.7%)이었다.

1) 전기 노인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2,523명(42.2%)이었으며, 여성이 3,453명(57.8%)이었다. 연령은 평균 68.9세(SD=2.8)였으며,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4,063명(68.0%)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2,251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이 1,690명(28.3%),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651명(27.6%), 대학교 졸업 이상이 384명(6.4%)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2,717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거주 노인이 1,770명(29.6%), 농어촌 거주 노인이 1,489명(24.9%)이었다. 가구 연소득수준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4분위가 1,917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3분위가 1,753명(29.3%), 2분위가 1,200명(20.1%), 1분위가 1,106명(18.5%)이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313명(5.2%)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2,413명(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1,463명(24.5%), 개신교 1,373명(23.0%), 천주교 661명(11.1%), 기타 66명(1.1%) 순이었다. 돌봄 제공자 유무는 비해당이 5,675명(9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 165명(2.8%), 있음 136명(2.3%) 순이었다.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 바람직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5,413명(9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5,344명(89.4%)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을 살펴보면, 만성질환 수는 평균 1.6개(SD=1.4)이었다. 건강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3,363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1,618명(27.1%), 불만족 546명(9.1%), 매우 만족 374명(6.3%), 매우 불만족 75명(1.3%)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인 노인이 5,945명(99.5%)이었으며, 1년 이내에 요양병원을 이용한 노인은 9명(0.2%)이었다. 우울감이 있는 노인은 610명(10.2%)이었으며 인지기능 저하 노인은 1,843명(30.8%)이었다.

주거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 거주 노인이 4,899명(82.0%)이었으며, 전세 547명(9.2%), 월세 440명(7.4%), 무상 거주 90명(1.5%) 순이었다. 주거 적합도에 대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4,235명(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을 위한 시설 갖춤 1,263명(21.1%), 노인을 위한 설비 없음 478명(8.0%) 순이었다. 주거 만족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4,672명(7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1,110명(18.6%), 불만족 194명(3.3%) 순이었다. 외출 시 제약점은 없음이 2,616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성 제약 2,162명(36.2%), 보행 위험 903명(15.1%), 대중교통 부족 295명(4.9%) 순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후기 노인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447명(36.7%)이었으며, 여성은 2,494명(63.3%)이었다. 연령은 평균 80.3세(SD=4.2)이었다. 혼인상태는 무배우자가 2,157명(54.7%)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노인이 2,779명(7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639명(16.2%), 고등학교 졸업 403명(10.2%), 대학교 졸업 이상 120명(3.0%)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1,390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 1,335명(33.9%), 중소도시 1,216명(30.9%) 순이었다. 가구 연소득수준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가 1,372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2분위 1,281명(32.5%), 3분위 723명(18.4%), 4분위 565명(14.3%) 순이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412명(10.5%)으로 파악되었다. 종교는 무교가 1,657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1,000명(25.4%), 개신교 877명(22.3%), 천주교 393명(10.0%), 기타 14명(0.4%) 순이었다. 돌봄 제공자 유무는 비해당이 3,226명(8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있음 362명(9.2%), 없음 353명(9.0%)이었다. 자녀와의 동거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3,333명(84.6%)이었다.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2,970명(75.4%)이었다.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을 살펴보면, 만성질환 수는 평균 2.2개(SD=1.5)이었다. 건강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1,390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함 1,385명(35.1%), 불만족 905명(23.0%), 매우 불만족 171명(4.3%), 매우 만족 90명(2.3%)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인 노인이 3,759명(95.4%)이었으며, 1년 이내에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은 11명(0.3%)이었다. 우울감이 있는 노인은 683명(17.3%)이었으며, 인지기능 저하 노인은 1,470명(37.3%)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주거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 거주 노인이 3,008명(7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383명(9.7%), 무상 거주 284명(7.2%), 전세 266명(6.8%) 순이었다. 주거 적합도에 대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2,840명(7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을 위한 시설 갖춤 604명(15.3%), 노인을 위한 설비 없음 497명(12.6%) 순이었다. 주거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2,786명(7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951명(24.1%), 불만족 204명(5.2%) 순이었다. 외출 시 제약점에 대해 이동성 제약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2,228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 877명(22.3%), 보행 위험 574명(14.6%), 대중교통 부족 262명(6.7%) 순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young-old vs old-old

(N=9,917)

Characteristics	Young-old(N=5976)		Old-old(N=3941)	
	N(%) or M±SD		N(%) or M±SD	
Dependent variable				
Desired residential type				
Nursing home	1,815	(30.4)	1,366	(34.7)
Home	4,161	(69.6)	2,575	(65.3)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Sex				
Male	2,523	(42.2)	1,447	(36.7)
Female	3,453	(57.8)	2,494	(63.3)
Age	68.9±2.8		80.3±4.2	
Marital status				
Married	4,063	(68.0)	1,784	(45.3)
Divorced, Separated, Widowed, Unmarried	1,913	(32.0)	2,157	(54.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651	(27.6)	2,779	(70.5)
Middle school	1,690	(28.3)	639	(16.2)
High school	2,251	(37.7)	403	(10.2)
≥College	384	(6.4)	120	(3.0)
Residential area				
Major city	2,717	(45.5)	1,390	(35.3)
Small and medium city	1,770	(29.6)	1,216	(30.9)
Rural area	1,489	(24.9)	1,335	(33.9)
Annual household income(quartiles)				
Lowest	1,106	(18.5)	1,372	(34.8)
Second lowest	1,200	(20.1)	1,281	(32.5)
Second highest	1,753	(29.3)	723	(18.4)
Highest	1,917	(32.1)	565	(14.3)
Recipient of social security				
No	5,663	(94.8)	3,529	(89.6)
Yes	313	(5.2)	412	(10.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mean)±SD(standard devia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young-old vs old-old (continued)

(N=9,917)

Characteristics	Young-old(N=5976)		Old-old(N=3941)	
	N(%) or M±SD		N(%) or M±SD	
Religion				
None	2,413	(40.4)	1,657	(42.1)
Buddhism	1,463	(24.5)	1,000	(25.4)
Protestantism	1,373	(23.0)	877	(22.3)
Catholicism	661	(11.1)	393	(10.0)
Other type	66	(1.1)	14	(0.4)
Care giver				
No	165	(2.8)	353	(9.0)
Yes	136	(2.3)	362	(9.2)
Not-applicable	5,675	(95.0)	3,226	(81.9)
Living with children				
Desirable	563	(9.4)	608	(15.4)
Undesirable	5,413	(90.6)	3,333	(84.6)
Payer of living expenses				
Oneself or spouse	5,344	(89.4)	2,970	(75.4)
Children	596	(10.0)	921	(23.4)
Other type	36	(0.6)	50	(1.3)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No. of chronic diseases	1.6±1.4		2.2±1.5	
Health status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75	(1.3)	171	(4.3)
Dissatisfied	546	(9.1)	905	(23.0)
Neutral	1,618	(27.1)	1,390	(35.3)
Satisfied	3,363	(56.3)	1,385	(35.1)
Very satisfied	374	(6.3)	90	(2.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mean)±SD(standard devia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young-old vs old-old (continued)

(N=9,917)

Characteristics	Young-old(N=5976)		Old-old(N=3941)	
	N(%) or M±SD		N(%) or M±SD	
Long-term care insurance				
Yes	31	(0.5)	182	(4.6)
No	5,945	(99.5)	3,759	(95.4)
Convalescent hospital(within 1 year)				
Yes	9	(0.2)	11	(0.3)
No	5,967	(99.9)	3,930	(99.7)
Depression				
Yes	610	(10.2)	683	(17.3)
No	5,366	(89.8)	3,258	(82.7)
Cognitive function				
Normal	4,133	(69.2)	2,471	(62.7)
Dysfunction	1,843	(30.8)	1,470	(37.3)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Housing occupancy types				
Free	90	(1.5)	284	(7.2)
Monthly rent	440	(7.4)	383	(9.7)
Lump-sum housing lease	547	(9.2)	266	(6.8)
Own house	4,899	(82.0)	3,008	(76.3)
Residential suitability				
Inconvenience of living	478	(8.0)	497	(12.6)
No facilities of the elderly	4,235	(70.9)	2,840	(72.1)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the elderly	1,263	(21.1)	604	(15.3)
Housing satisfaction				
Dissatisfied	194	(3.3)	204	(5.2)
Neutral	1,110	(18.6)	951	(24.1)
Satisfied	4,672	(78.2)	2,786	(70.7)
Constraint of going out				
None	2,616	(43.8)	877	(22.3)
Mobility constraints	2,162	(36.2)	2,228	(56.5)
Lack of public transport	295	(4.9)	262	(6.7)
Walking hazard	903	(15.1)	574	(14.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mean)±SD(standard devia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 대상의 특성별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차이: 단변수 분석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 별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 검정과 독립 t-test을 시행하였다. p-value<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1) 전기 노인

전기 노인의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에 따른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가구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생활비 부담 주체가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교육 수준, 돌봄 제공자 유무는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의 건강상태 만족도, 우울감, 인지 기능이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만성질환 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주거환경특성의 주택 소유 형태, 주택 만족도, 외출 시 제약점이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주거 적합도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6. Univariable analysis: desired residential type of young-old

(N=5,976)

Characteristics	Nursing home (N=1,815)	Home (N=4,161)	*p*-value*
	N(%) or M±SD	N(%) or M±SD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Sex			0.011
Male	720 (28.5)	1,803 (71.5)	
Female	1,095 (31.7)	2,358 (68.3)	
Age(M±SD)	69.0±2.8	68.9±2.8	0.014†
Marital status			<.001
Married	1,136 (28.0)	2,927 (72.0)	
Divorced, Separated, Widowed, Unmarried	679 (35.5)	1,234 (64.5)	
Education			0.135
≤Elementary school	468 (28.4)	1,183 (71.7)	
Middle school	549 (32.5)	1,141 (67.5)	
High school	677 (30.1)	1,574 (69.9)	
≥College	121 (31.5)	263 (68.5)	
Residential area			<.001
Major city	768 (28.3)	1,949 (71.7)	
Small and medium city	630 (35.6)	1,140 (64.4)	
Rural area	417 (28.0)	1,072 (72.0)	
Annual household income(quartiles)			<.001
Lowest	292 (26.4)	814 (73.6)	
Second lowest	402 (33.5)	798 (66.5)	
Second highest	579 (33.0)	1,174 (67.0)	
Highest	542 (28.3)	1,375 (71.7)	
Recipient of social security			<.001
No	1,677 (29.6)	3,986 (70.4)	
Yes	138 (44.1)	175 (55.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6. Univariable analysis: desired residential type of young-old(continued)

(N=5,976)

Characteristics	Nursing home (N=1,815)	Home (N=4,161)	*p*-value*
	N(%) or M±SD	N(%) or M±SD	
Religion			0.009
None	730 (30.3)	1,683 (69.8)	
Buddhism	391 (26.7)	1,072 (73.3)	
Protestantism	453 (33.0)	920 (67.0)	
Catholicism	216 (32.7)	445 (67.3)	
Other type	25 (37.9)	41 (62.1)	
Care giver			0.073
No	58 (35.2)	107 (64.9)	
Yes	40 (29.4)	96 (70.6)	
Not-applicable	1,717 (30.3)	3,958 (69.7)	
Living with children			0.001
Desirable	130 (23.1)	433 (76.9)	
Undesirable	1,685 (31.1)	3,728 (68.9)	
Payer of living expenses			0.027
Oneself or spouse	1,640 (30.7)	3,704 (69.3)	
Children	155 (26.0)	441 (74.0)	
Other type	20 (55.6)	16 (44.4)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No. of chronic diseases	1.6±1.4	1.6±1.4	0.381†
Health status satisfaction			<.001
Very dissatisfied	43 (57.3)	32 (42.7)	
Dissatisfied	205 (37.6)	341 (62.5)	
Neutral	495 (30.6)	1,123 (69.4)	
Satisfied	982 (29.2)	2,381 (70.8)	
Very satisfied	90 (24.1)	284 (75.9)	
Long-term care insurance			0.166
Yes	13 (41.9)	18 (58.1)	
No	1,802 (30.3)	4,143 (69.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6. Univariable analysis: desired residential type of young-old(continued)

(N=5,976)

Characteristics	Nursing home (N=1,815)	Home (N=4,161)	*p*-value*
	N(%) or M±SD	N(%) or M±SD	
Convalescent hospital(within 1 year)			0.343
Yes	4 (44.4)	5 (55.6)	
No	1,811 (30.4)	4,156 (69.7)	
Depression			0.005
Yes	216 (35.4)	394 (64.6)	
No	1,599 (29.8)	3,767 (70.2)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001
Normal	1,175 (28.4)	2,958 (71.6)	
Dysfunction	640 (34.7)	1,203 (65.3)	
Residential environment			
Housing occupancy types			<.001
Free	32 (35.6)	58 (64.4)	
Monthly rent	190 (43.2)	250 (56.8)	
Lump-sum housing lease	247 (45.2)	300 (54.8)	
Own house	1,346 (27.5)	3,553 (72.5)	
Residential suitability			0.082
Inconvenience of living	145 (30.3)	333 (69.7)	
No facilities of the elderly	1,331 (31.4)	2,904 (68.6)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the elderly	339 (26.8)	924 (73.2)	
Housing satisfaction			<.001
Dissatisfied	102 (52.6)	92 (47.4)	
Neutral	448 (40.4)	662 (59.6)	
Satisfied	1,265 (27.1)	3,407 (72.9)	
Constraint of going out			<.001
None	699 (26.7)	1,917 (73.3)	
Mobility constraints	704 (32.6)	1,458 (67.4)	
Lack of public transport	85 (28.8)	210 (71.2)	
Walking hazard	327 (36.2)	576 (63.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 P-value for the Rao-Scott chi-square test
† P-value for the Independent t-test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후기 노인

후기 노인의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에 따른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돌봄 제공자 유무, 생활비 부담 주체가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교육 수준, 거주지역,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은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의 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요양병원 입원 여부, 우울감, 인지기능이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주거환경특성의 주거 소유 형태, 주택 적합도, 주택 만족도, 외출 시 제약점이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7. Univariable analysis: desired residential type of old-old

(N=3,941)

Characteristics	Nursing home (N=1,366)	Home (N=2,575)	*p*-value*
	N(%) or M±SD	N(%) or M±SD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Sex			0.005
Male	453 (31.3)	994 (68.7)	
Female	913 (36.6)	1,581 (63.4)	
Age(M±SD)	80.7±4.3	80.1±4.1	<.001†
Marital status			<.001
Married	538 (30.2)	1,246 (69.8)	
Divorced, Separated, Widowed, Unmarried	828 (38.4)	1,329 (61.6)	
Education			0.782
≤Elementary school	979 (35.2)	1,800 (64.8)	
Middle school	229 (35.8)	410 (64.2)	
High school	127 (31.5)	276 (68.5)	
≥College	31 (25.8)	89 (74.2)	
Residential area			0.137
Major city	435 (31.3)	955 (68.7)	
Small and medium city	449 (36.9)	767 (63.1)	
Rural area	482 (36.1)	853 (63.9)	
Annual household income(quartiles)			0.686
Lowest	450 (32.8)	922 (67.2)	
Second lowest	461 (36.0)	820 (64.0)	
Second highest	250 (34.6)	473 (65.4)	
Highest	205 (36.3)	360 (63.7)	
Recipient of social security			0.246
No	1,200 (34.6)	2,309 (65.4)	
Yes	146 (35.4)	266 (64.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7. Univariable analysis: desired residential type of old-old (continued)

(N=3,941)

Characteristics	Nursing home (N=1,366)	Home (N=2,575)	*p*-value*
	N(%) or M±SD	N(%) or M±SD	
Religion			0.374
None	617 (37.2)	1,040 (62.8)	
Buddhism	305 (30.5)	695 (69.5)	
Protestantism	302 (34.4)	575 (65.6)	
Catholicism	136 (34.6)	257 (65.4)	
Other type	6 (42.9)	8 (57.1)	
Care giver			0.010
No	130 (36.8)	223 (63.2)	
Yes	171 (47.2)	191 (52.8)	
Not-applicable	1,065 (33.0)	2,161 (67.0)	
Living with children			0.500
Desirable	187 (30.8)	421 (69.2)	
Undesirable	1,179 (35.4)	2,154 (64.6)	
Payer of living expenses			0.001
Oneself or spouse	963 (32.4)	2,007 (67.6)	
Children	373 (40.5)	548 (59.5)	
Other type	30 (60.0)	20 (40.0)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No. of chronic diseases	2.3±1.6	2.1±1.4	<.001†
Health status satisfaction			<.001
Very dissatisfied	76 (44.4)	95 (55.6)	
Dissatisfied	393 (43.4)	512 (56.6)	
Neutral	514 (37.0)	876 (63.0)	
Satisfied	358 (25.9)	1,027 (74.2)	
Very satisfied	25 (27.8)	65 (72.2)	
Long-term care insurance			0.794
Yes	69 (37.9)	113 (62.1)	
No	1,297 (34.5)	2,462 (65.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7. Univariable analysis: desired residential type of old-old (continued)

(N=3,941)

Characteristics	Nursing home (N=1,366)	Home (N=2,575)	*p*-value*
	N(%) or M±SD	N(%) or M±SD	
Convalescent hospital(within 1 year)			<.001
Yes	9 (81.8)	2 (18.2)	
No	1,357 (34.5)	2,573 (65.5)	
Depression			<.001
Yes	289 (42.3)	394 (57.7)	
No	1,077 (33.1)	2,181 (66.9)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001
Normal	768 (31.1)	1,703 (68.9)	
Dysfunction	598 (40.7)	872 (59.3)	
Residential environment			
Housing occupancy types			<.001
Free	139 (48.9)	145 (51.1)	
Monthly rent	168 (43.9)	215 (56.1)	
Lump-sum housing lease	147 (55.3)	119 (44.7)	
Own house	912 (30.3)	2,096 (69.7)	
Residential suitability			0.030
Inconvenience of living	173 (34.8)	324 (65.2)	
No facilities of the elderly	996 (35.1)	1,844 (64.9)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the elderly	197 (32.6)	407 (67.4)	
Housing satisfaction			<.001
Dissatisfied	106 (52.0)	98 (48.0)	
Neutral	427 (44.9)	524 (55.1)	
Satisfied	833 (29.9)	1,953 (70.1)	
Constraint of going out			0.016
None	275 (31.4)	602 (68.6)	
Mobility constraints	754 (33.8)	1,474 (66.2)	
Lack of public transport	128 (48.9)	134 (51.2)	
Walking hazard	209 (36.4)	365 (63.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 P-value for the Rao-Scott Chis-square test
† P-value for the Independent t-test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연구 대상자의 거동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 다변수 분석

전기·후기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단계적으로 통제변수를 통제하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단변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변수도 모두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 변수에 대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1.5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과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모형 2에서는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주거환경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Table 9).

1) 전기 노인

각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C-statistic 값을 확인하였다. 모형 1은 0.61, 모형 2는 0.63, 모형 3은 0.66으로 모형 3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AIC 값을 비교해본 결과 모형 1은 5175077.4, 모형 2는 5132895.4, 모형 3은 5051556.8로 모형 3에서 가장 적합했으며, -2 Log L의 값을 비교해본 결과 모형 1은 5175033.4, 모형 2는 5132833.4, 모형 3은 5051474.8로 모형 3이 가장 적합하였다. 모형 적합성 검정을 위해 실시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모형 1은 0.2056, 모형 2는 0.1116, 모형 3은 0.3994으로 모든 모형에서 적합도가 확인되었으며, 모형 3이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 1에서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과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생활비 부담 주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는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가구 연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생활비 부담 주체, 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우울감, 인지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확인되었다.

모형 3은 모형 2에서 거주환경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돌봄 제공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생활비 부담 주체, 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인지기능, 주택 적합도, 주택 만족도, 외출 시 제약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의 경우, 남성 대비 여성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17(95% CI=1.02-1.35)이었으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는 1.04(95% CI=1.01-1.06)이었다. 유배우자인 군 대비 무배우자인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는 1.41(95% CI=1.22-1.63)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 대비 중학교를 졸업한 군에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26(95% CI=1.05-1.50)이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군에서는 1.32(95% CI=1.10-1.58), 대학교를 졸업한 군에서는 1.43(95% CI=1.05-1.94)이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군 대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26(95% CI=1.09-1.46)이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연 소득수준 1분위인 군 대비 가구 연 소득수준이 2분위인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44(95% CI=1.19-1.74), 3분위 군에서 1.44(95% CI=1.20-1.74)이었으며, 4분위 군에서 1.23(95% CI=1.01-1.50)이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아닌 군 대비 수급자인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45(95% CI=1.06-1.97)이었다. 무교인 군 대비 불교를 믿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84(95% CI=0.71-1.00)이었으며, 개신교, 천주교, 기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돌봄 제공자 유무의 경우 일상생활 기능이 독립적이지 않은 군 중에서 돌봄 제공자가 없는 군 대비 있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54(95% CI=0.31-0.94)이었으며, 일상생활 기능이 완전히 독립적인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군 대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는 1.52(95% CI=1.21-1.92)이었다.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군 대비 자녀가 부담하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71(95% CI=0.57-0.89)이었으며, 기타인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의 경우, 만성질환 수가 1개 증가할 때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92(95% CI=0.87-0.97)이었다. 건강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하지 않는 군 대비 불만족인 군에서 거동 불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희망할 오즈비가 0.40(95% CI=0.21-0.74)이었으며, 보통인 군에서 0.35(95% CI=0.19-0.64), 만족인 군에서 0.36(95% CI=0.19-0.67)이었으며 매우 만족하는 군에서는 0.28(95% CI=0.14-0.56)이었다. 인지기능이 정상인 군 대비 저하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는 1.29(95% CI=1.12-1.48)이었다.

주거환경특성의 경우, 생활하기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가진 군 대비 생활하기에 불편하진 않지만 노인을 위한 설비가 없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33(95% CI=1.03-1.73)이었으며, 노인을 위한 설비가 갖춰진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택 만족도에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군 대비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60(95% CI=0.41-0.86)이었으며, 만족한다고 답한 군에서는 0.42(95% CI=0.29-0.59)이었다. 외출 시 제약점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군 대비 이동성 제약이라고 응답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20(95% CI=1.03-1.41), 보행 위험이라고 응답한 군에서는 1.44(95% CI=1.19-1.73)이었으며, 대중교통 부족이라 응답한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8. Multivariable analysis: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of young-old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Sex(ref. Male)						
Female	1.18*	(1.03-1.35)	1.18*	(1.02-1.35)	1.17*	(1.02-1.35)
Age	1.04**	(1.01-1.06)	1.04**	(1.01-1.06)	1.04**	(1.01-1.06)
Marital status(ref. Married)						
Divorced, Separated, Widowed, Unmarried	1.58***	(1.38-1.82)	1.56***	(1.36-1.79)	1.41**	(1.22-1.63)
Education(re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1.32**	(1.11-1.56)	1.26**	(1.06-1.50)	1.26*	(1.05-1.50)
High school	1.29**	(1.09-1.54)	1.29**	(1.09-1.54)	1.32**	(1.10-1.58)
≥College	1.28	(0.95-1.72)	1.39*	(1.03-1.88)	1.43*	(1.05-1.94)
Residential area(ref. Major city)						
Small and medium city	1.28***	(1.11-1.48)	1.27**	(1.09-1.47)	1.26**	(1.09-1.46)
Rural area	0.96	(0.82-1.12)	0.93	(0.79-1.09)	0.95	(0.80-1.11)
Annual household income(quartiles)(ref. Lowest)						
Second lowest	1.43***	(1.18-1.72)	1.40***	(1.16-1.69)	1.44***	(1.19-1.74)
Second highest	1.38***	(1.15-1.66)	1.41***	(1.17-1.69)	1.44***	(1.20-1.74)
Highest	1.12	(0.93-1.36)	1.19	(0.98-1.44)	1.23*	(1.01-1.50)
Recipient of social security(ref. No)						
Yes	1.75***	(1.32-2.33)	1.77***	(1.33-2.37)	1.45*	(1.06-1.97)
Religion(ref. None)						
Buddhism	0.80**	(0.68-0.94)	0.83*	(0.70-0.98)	0.84*	(0.71-1.00)
Protestantism	1.03	(0.88-1.21)	1.07	(0.91-1.26)	1.07	(0.91-1.26)
Catholicism	1.08	(0.88-1.33)	1.11	(0.90-1.37)	1.10	(0.89-1.37)
Other type	1.22	(0.69-2.14)	1.21	(0.68-2.13)	1.21	(0.67-2.18)
Care giver(ref. No)						
Yes	0.64	(0.37-1.10)	0.59	(0.34-1.02)	0.54*	(0.31-0.94)
Not-applicable	0.87	(0.61-1.23)	1.07	(0.72-1.57)	1.01	(0.67-1.52)
Living with children(ref. Desirable)						
Undesirable	1.45**	(1.16-1.82)	1.47***	(1.17-1.84)	1.52***	(1.21-1.92)
Payer of living expenses(ref. Oneself or spouse)						
Children	0.75**	(0.60-0.93)	0.71**	(0.57-0.88)	0.71**	(0.57-0.89)
Other type	1.44	(0.61-3.38)	1.28	(0.53-3.08)	1.11	(0.48-2.55)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p<0.00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8. Mult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of young-old(continued)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No. of chronic diseases			0.92**	(0.87-0.97)	0.92**	(0.87-0.97)
Health status satisfaction(ref.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0.41**	(0.22-0.75)	0.40**	(0.21-0.74)
Neutral			0.34***	(0.19-0.62)	0.35***	(0.19-0.64)
Satisfied			0.32***	(0.18-0.59)	0.36**	(0.19-0.67)
Very satisfied			0.24***	(0.13-0.47)	0.28***	(0.14-0.56)
Long-term care insurance(ref. Yes)						
No			0.66	(0.29-1.53)	0.62	(0.27-1.40)
Convalescent hospital(within 1 year)(ref. Yes)						
No			0.75	(0.20-2.85)	0.75	(0.18-3.14)
Depression(ref. Yes)						
No			0.79*	(0.63-0.98)	0.85	(0.67-1.07)
Cognitive function(ref. Normal)						
Dysfunction			1.30***	(1.14-1.49)	1.29***	(1.12-1.48)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Housing occupancy types(ref. Free)						
Monthly rent					1.06	(0.61-1.81)
Lump-sum housing lease					1.35	(0.80-2.29)
Own house					0.81	(0.50-1.33)
Residential suitability(ref. Inconvenience of living)						
No facilities of the elderly					1.33*	(1.03-1.73)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the elderly					1.26	(0.94-1.69)
Housing satisfaction(ref. Dissatisfied)						
Neutral					0.60**	(0.41-0.86)
Satisfied					0.42***	(0.29-0.59)
Constraint of going out(ref. None)						
Mobility constraints					1.20*	(1.03-1.41)
Lack of public transport					1.02	(0.75-1.40)
Walking hazard					1.44***	(1.19-1.73)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p<0.00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후기 노인

각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C-statistic 값을 확인하였다. 모형 1은 0.61, 모형 2는 0.65, 모형 3은 0.69로 모형 3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AIC 값을 비교해본 결과 모형 1은 4072421.9, 모형 2는 3997980.0, 모형 3은 3854563.9로 모형 3에서 가장 적합하였으며, -2 Log L 값을 비교한 결과 모형 1은 4072377.9, 모형 2는 3997918.0, 모형 3은 3854481.9로 모형 3이 가장 적합하였다. 모형 적합성 검정을 위해 실시한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모형 1은 0.6407, 모형 2는 0.6274, 모형 3은 0.3890으로 모든 모형에서 적합도가 확인되었으며, 모형 3이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 1에서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과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종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생활비 부담 주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는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으로,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종교, 생활비 부담 주체, 건강상태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 인지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확인되었다.

모형 3은 모형 2에서 거주환경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으로,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 인지기능, 주택 소유 형태, 주택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의 경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03(95% CI=1.01-1.05)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유배우자인 군 대비 무배우자인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34(95% CI=1.09-1.65)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 대비 중학교를 졸업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31(95% CI=1.01-1.69)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군 대비 중소도시 거주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27(95% CI=1.02-1.59)이었다.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군 대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29(95% CI=1.00-1.66)이었다.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군 대비 등급외자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80(95% CI=1.13-2.89)이었다.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군 대비 없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06(95% CI=0.01-0.42)이었다. 인지기능 정상인 군 대비 인지기능 저하인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1.29(95% CI=1.07-1.54)이었다.

주거환경 특성의 경우, 무상 거주 군 대비 자가에서 거주하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51(95% CI= 0.37-0.69)이었다. 주택 만족도가 불만족인 군 대비 보통인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0.58(95% CI= 0.39-0.88)이었으며, 만족하는 군에서는 0.38(95% CI=0.26-0.57)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9. Multivariable analysis: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of old-old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Sex(ref. Male)						
female	1.14	(0.92-1.42)	1.12	(0.90-1.38)	1.11	(0.89-1.38)
Age	1.03*	(1.01-1.06)	1.03**	(1.01-1.05)	1.03*	(1.01-1.05)
Marital status(ref. Married)						
Divorced, Separated, Widowed, Unmarried	1.46***	(1.20-1.79)	1.46***	(1.19-1.79)	1.34**	(1.09-1.65)
Education(re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1.36*	(1.06-1.73)	1.34*	(1.04-1.72)	1.31*	(1.01-1.69)
High school	1.27	(0.93-1.72)	1.31	(0.96-1.79)	1.30	(0.95-1.77)
≥College	1.22	(0.71-2.08)	1.27	(0.76-2.14)	1.24	(0.73-2.11)
Residential area(ref. Major city)						
Small and medium city	1.18	(0.96-1.46)	1.18	(0.95-1.46)	1.27*	(1.02-1.59)
Rural area	1.12	(0.92-1.37)	1.12	(0.92-1.37)	1.24	(1.00-1.54)
Annual household income(quartiles)(ref. Lowest)						
Second lowest	1.09	(0.90-1.34)	1.07	(0.88-1.31)	1.09	(0.88-1.33)
Second highest	1.11	(0.87-1.43)	1.11	(0.87-1.43)	1.17	(0.90-1.52)
Highest	0.91	(0.68-1.21)	0.92	(0.69-1.24)	1.02	(0.77-1.37)
Recipient of social security(ref. No)						
Yes	0.99	(0.74-1.33)	0.93	(0.68-1.26)	0.71	(0.51-1.01)
Religion(ref. None)						
Buddhism	0.80*	(0.64-0.99)	0.79*	(0.64-0.98)	0.84	(0.67-1.04)
Protestantism	0.84	(0.67-1.05)	0.85	(0.68-1.07)	0.85	(0.68-1.08)
Catholicism	0.84	(0.62-1.13)	0.83	(0.62-1.13)	0.84	(0.60-1.16)
Other type	1.64	(0.48-5.65)	1.68	(0.43-6.53)	1.78	(0.41-7.70)
Care giver(ref. No)						
Yes	1.08	(0.74-1.57)	1.06	(0.71-1.59)	1.01	(0.67-1.53)
Not-applicable	0.85	(0.64-1.13)	1.05	(0.77-1.41)	1.01	(0.73-1.39)
Living with children(ref. Desirable)						
Undesirable	1.30*	(1.01-1.67)	1.27	(0.98-1.64)	1.29*	(1.00-1.66)
Payer of living expenses(ref. Oneself or spouse)						
Children	1.11	(0.91-1.37)	1.05	(0.85-1.29)	1.01	(0.82-1.25)
Other type	2.23*	(1.10-4.52)	2.06*	(1.02-4.15)	1.79	(0.88-3.64)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p<0.00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9. Multivariable analysis: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of old-old(continued)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No. of chronic diseases			1.04	(0.98-1.10)	1.06	(0.99-1.13)
Health status satisfaction(ref.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0.85	(0.55-1.32)	0.91	(0.58-1.41)
Neutral			0.63*	(0.40-0.99)	0.71	(0.45-1.12)
Satisfied			0.50**	(0.31-0.79)	0.63	(0.40-1.01)
Very satisfied			0.46*	(0.21-1.00)	0.57	(0.25-1.27)
Long-term care insurance(ref. Yes)						
No			1.79*	(1.14-2.79)	1.80*	(1.13-2.89)
Convalescent hospital(within 1 year)(ref. Yes)						
No			0.06**	(0.01-0.35)	0.06**	(0.01-0.42)
Depression(ref. Yes)						
No			0.84	(0.67-1.06)	0.94	(0.74-1.20)
Cognitive function(ref. Normal)						
Dysfunction			1.28**	(1.07-1.52)	1.29**	(1.07-1.54)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Housing occupancy types(ref. Free)						
Monthly rent					0.77	(0.50-1.19)
Lump-sum housing lease					1.44	(0.94-2.19)
Own house					0.51***	(0.37-0.69)
Residential suitability(ref. Inconvenience of living)						
No facilities of the elderly					1.03	(0.78-1.36)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the elderly					1.01	(0.71-1.44)
Housing satisfaction(ref. Dissatisfied)						
Neutral					0.58**	(0.39-0.88)
Satisfied					0.38***	(0.26-0.57)
Constraint of going out(ref. None)						
Mobility constraints					0.97	(0.77-1.22)
Lack of public transport					1.44	(1.00-2.09)
Walking hazard					1.22	(0.91-1.63)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p<0.00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Ⅳ. 고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연구 자료의 경우,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Kang and Kang, 2005), 노인실태조사(Choo, 2021; Jung and Han, 2021) 등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Bae, 2020; Han, Hwang and Lee, 2016; Han, Kang and Kwon, 2011; Kim, Song and Jeong 2021; Lee and Bae, 2004; Lee and Lee, 2008a; Lee and Lee, 2008b; Lee, 2003; Lee and Lee, 2007; Lee, 2005; Lim, 2008; Park, 2015; Seok and Yi, 2017; Shin, 2022; Song and Song, 2018) 에서는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설문 자료인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Bae, 2020; Choo, 2021; Han, Hwang and Lee, 2016; Han, Kang and Kwon, 2011; Jung and Han, 2021; Lee and Bae, 2004; Lee and Lee, 2008a; Lee and Lee, 2008b; Lee, 2003; Lee and Lee, 2007; Lee, 2005; Lim, 2008; Seok and Yi, 2017; Shin, 2022; Song and Song, 2018)에서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구분을 하지 않아 연령대별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분류하여 두 집단의 노인요양시설 의향 차이를 비교한 선행연구(Lee and Lee, 2008b; Lee an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ee, 2007)가 있지만, 노인의 종합적인 특성과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하여 연령대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노인의 종합적인 특성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에 따라서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선행연구(Choo, 2021; Han, Hwang and Lee, 2016; Jung and Han, 2021; Kang and Kang, 2005; Lee and Bae, 2004; Lee and Lee, 2008a; Lee and Lee, 2008b; Lee, 2003; Lee and Lee, 2007; Lee, 2005; Seok and Yi, 2017; Shin, 2022)와 노인의 보호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선행연구(Bae, 2020; Park, 2015)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이 중요함(Kim, 2020)에 따라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에 관한 선행논문(Bae, 2020; Choo, 2021; Han, Hwang and Lee, 2016; Han, Kang and Kwon, 2011; Jung and Han, 2021; Kang and Kang, 2005; Lee and Lee, 2008a; Lee and Lee, 2008b; Lee and Lee, 2007; Lee, 2005; Lim, 2008; Park, 2015; Seok and Yi, 2017; Shin, 2022; Song and Song, 2018)과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 관한 선행논문(Lee and Bae, 2004; Lee, 2003)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의 종속변수를 참조하여 노인의 희망 거주지를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한 노인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을 허약한 노인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Lee et al., 2017)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확인 가능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및 기능 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독립변수 정의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하게 범주화하거나 연속변수의 형태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11개(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돌봄 제공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생활비 부담 주체),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 6개(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 우울감, 인지기능), 주거환경 특성 4개(주택 소유 형태, 주거 적합도, 주택 만족도, 외출 시 제약점)로 분류하였다.

통계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노인 또는 그 가족의 시설 이용 의향 또는 시설 거주 이유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또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Bae, 2020; Jung and Han, 2021; Kim, Moon and Oh, 2015; Lee and Lee, 2008a; Lee and Lee, 2007; Lee, 2005; Park, 2015; Park and Ma, 2020; Seok and Yi, 2017; Song and Song, 2018)가 대부분이었다. 복합표본 자료를 이용한 경우, 가중치를 적용한 다항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Kang and Kang, 2005)가 있었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ANOVA를 이용하였다(Choo, 2021; Kwak, 2011; Lee and Bae, 2004). 이외에도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시설로의 이탈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Han, Hwang and Lee, 2016; Han, Kang and Kwon, 2011; Seok and Yi, 2017; Shin, 2022)가 있었으며, 의사결정나무 분석(Lim, 2008)과 질적연구 방법(Lee, 2003; Lee, 2017)을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노인실태조사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전국 노인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횡단적 연구조사로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특성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유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파악할 수 없었다. 분석 자료인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국가 보조금이 없는 유료 실버타운 모두를 모두 포함해 조사하였다. 본인부담금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파악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종류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수 및 병상 수 등은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 Induced Demand, SID)를 발생시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 유인수요를 보정하고자 지역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공급자 유인수요를 보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거주지역의 시설 분포를 고려하여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할 경우를 가정하여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노인요양시설 이용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다섯째, 전기 노인의 경우 후기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때문에 거동 불편 상황을 동일하게 가정하였더라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이 점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 상태 및 거동 불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응급의료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거주지와 응급의료시설과의 거리, 응급의료시설까지의 교통수단 등 응급의료 접근도는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분석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 접근도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응급의료 접근 용이성의 관련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양병원 입원 여부는 지난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과거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과거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SGDS를 이용하여 우울감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더욱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거동이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과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 노인의 경우 1,815명(30.4%), 후기 노인의 1,366명(34.7%)이 거동이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특성은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인지기능, 주택 만족도였다. 전기 노인에게서만 유의했던 특성은 성별,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돌봄 제공자 유무, 생활비 부담 주체, 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주거 적합도, 외출 시 제약점이었으며, 후기 노인에게서만 유의했던 특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 주택 소유 형태였다.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에서 성별의 경우, 전기 노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높았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시설 거주 의사를 확인한 선행연구(Bae, 2020; Seok and Yi, 2017)의 결과를 지지하나,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선행연구(Han, Hwang and Lee, 2016; Lee and Lee, 2008a; Lee, 2005)와 남성에게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더 높았던 선행연구(Lee and Lee, 2007; Song and Song, 2018)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별 분류 여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령의 경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높았으며, 선행연구(Ha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Hwang and Lee, 2016; Seok and Yi, 2017; Song and Song, 2018)의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 이용 의사가 높았던 선행연구(Kang and Kang, 2005)와 75세 미만 노인에게서 시설 이용 의사가 높았던 선행연구(Lee and Lee, 2007),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선행연구(Lee, 2005)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연령과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간의 유의성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돌봄 제공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같은 돌봄 자원의 유무 및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혼인상태의 경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에서 모두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Lee and Lee, 2007; Park, 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

교육 수준의 경우 후기 노인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 대비 중학교 졸업인 경우, 전기 노인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 대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높았으며, 선행연구(Kang and Kang, 2005; Lee and Lee,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거주지역의 경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중소도시 거주 노인이 대도시 거주 노인보다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높았다. 대도시 거주하는 경우 시설 거주 의향이 높았던 선행연구(Bae, 2020; Kang and Kang, 2005)와 상이한 결과이다. 도시 지역에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많고(Lee, 2021), 노인요양시설 시설이 적은 것과 반대로(Lee et al., 2020), 중소도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분포하고 있음이(Kim, Chae and Nam, 2022)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전기 노인에서는 가구 연 소득수준이 1분위인 군에 비해 2분위와 3분위, 4분위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의향이 높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설 거주 의사가 있다는 선행연구(Lee and Lee, 2007; Lee, 2005)의 결과를 지지하나, 소득이 높을수록 재가급여를 선택한다는 선행연구(Seok and Yi, 2017)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 혹은 가족의 부양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주거형태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비용의 시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여부의 경우, 전기노인에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가 아닌 군에 비해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시설 급여 이용 의사가 높다는 선행연구(Seok and Yi, 2017; Song and Song, 2018)의 결과를 지지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돌봄 제공자 유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전기 노인의 경우 돌봄 제공자가 없는 군 대비 있는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낮았다.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로 이행할 해저드가 낮았던 선행연구(Shin, 202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군에게 돌봄 제공자가 지역사회에서의 계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의 경우, 전기 노인에서 무교 대비 불교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낮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한다는 선행연구(Kwak, 2011) 결과를 지지하며, 불교와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자녀와의 동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군 대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오즈비가 높았다. 자녀의 노인 부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시설이용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사가 낮다는 선행연구(Choo, 2021; Lee,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전기 노인의 경우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군 대비 자녀가 부담하는 군에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낮았다. 생활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군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자녀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기에, 본 연구 결과는 노후 생활자금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전기 노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상태 및 기능상태 특성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경우, 전기 노인에서는 만성질환이 1개 늘어날 때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오즈비가 낮아졌다. 전기 노인은 적극적인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집단으로(Kim, Kim and Kim, 2017) 의료시설 이용 및 건강증진 행위에 제약이 있는 노인요양시설보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용이한 지역사회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 만족도의 경우 전기 노인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을 경우 대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만족함, 매우 만족함에 응답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본 연구 결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시설 거주를 의향을 확인한 선행연구(Kang and Kang, 2005)의 결과를 지지한다.

후기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대비 등급외자에서 거동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등급 인정자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등급외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Lee and Kim, 2019) 미충족 돌봄 욕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미충족 돌봄 욕구가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군 대비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없는 후기 노인에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있을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요양병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 거주하던 지역사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장기요양시설 거주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Youn and Rhee, 2021). 이와 달리,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없는 후기 노인의 경우, 건강이 악화되어 시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질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Shin, 2022), 돌봄과 의료요구를 모두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Cho and Kwon, 2020)에 입원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인지기능 정상 군 대비 저하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인지장애가 있을 경우 시설이용 의사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Berete et al., 2022; Lee, 2005; Shin, 2022)의 결과를 지지한다.

주거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 소유 형태의 경우 후기 노인에서 자가일 경우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선행연구(Choo, 2021; Jung and Han, 2021; Kwak, 2011; Park and Ma, 2020)의 결과를 지지한다.

주거 적합도의 경우 생활하기 불편한 환경 대비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없지만 노인을 위한 시설이 없을 경우 전기 노인에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오즈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선행연구(Choo, 2021)와 종속변수의 분류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연구 결과의 방향성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주택 만족도의 경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에서 불만족인 군 대비 보통인 군과 만족하는 군에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오즈비가 낮아졌으며, 선행연구(Choo, 2021; Jung and Han, 2021; Kwak,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외출 시 제약점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군 대비 이동성 제약, 보행 위험이라고 응답한 군에서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보행 안전과 교통안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거주지 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지와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Park and Ma, 2020; Park,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혼인상태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무배우자인 군에게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발생되는 고독함, 외로움, 미충족 돌봄 욕구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인 대상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기 노인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군은 수급자가 아닌 군에 비해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인부담금 감면이 불필요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의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재정을 감안하여 필요시 본인부담금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 노인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의존적인 노인의 경우 돌봄 제공자가 있을 때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낮아졌다. 일상생활 수행에 의존적인 전기 노인의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더 오래 생활하기 위해 돌봄 자원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활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전기 노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인의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갇혀 있는 노인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적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기 노인에서 만성질환 수가 증가할 때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운동, 의료이용 등 건강관리의 제약이 있는 노인요양시설보다 지역사회에 머무르고자 하려는 의도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제공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여섯째, 후기 노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에 비해 등급외자의 높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을 확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노인은 재가급여 서비스(방문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를 이용할 수 있는 군으로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이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을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는 반대로, 등급외자는 등급 인정자에 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Lee and Kim, 2019) 미충족 돌봄 서비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이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 공통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높았다. 인지장애는 회복하기 어려운 퇴행성 질환으로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장애 저하 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장애를 가지고도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전기 노인에서 가정 내 노인을 위한 시설이 없을 때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생활하는 데 손잡이 설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다. 국가 재정 형편을 고려한 후 필요시 노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주택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는 재정적 한계 내에서 노인의 주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택 수리 및 보수 등의 시행을 고민해봐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 번째, 전기 노인의 경우 외출 시 이동성과 보행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주택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노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 관련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특성에 따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기 노인과 관련된 특성은 새롭게 노인층으로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노인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관련된 특성을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복합표본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특성,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주거환경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하였다.

다변수 분석 결과,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거주 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특성은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거주지역,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인지기능, 주택 만족도였다. 전기 노인에게서만 유의했던 특성은 성별, 가구 연 소득수준, 사회보장급여 여부, 종교, 돌봄 제공자 유무, 생활비 부담 주체, 만성질환 수, 건강상태 만족도, 주거 적합도, 외출 시 제약점이었으며, 후기 노인에게서만 유의했던 특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병원 입원 여부, 주택 소유 형태였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에 따른 거동 불편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 관련 특성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기 노인을 대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이 불필요한 노인요양시설 입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가구 연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의 주거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 형태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시설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갇혀 있는 노인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후기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인지기능 저하 예방 프로그램 제공과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전기·후기 노인 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주거정책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Ⅵ. 참고문헌

Bae HW. The Factors affecting families' preference in home benefit for utilization of facility care in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2020;12(1):1-12.

Berete F, Demarest S, Charafeddine R, De Ridder K, Vanoverloop J, Van Oyen H, Bruyère O, Van der Heyden J. Predictors of nursing home admission in the older population in Belgium: a longitudinal follow-up of health interview survey participants. BMC geriatrics 2022;22(1):1-13.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udit report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lderly care facilities. 2020. Available from www.bai.go.kr

Cha SY, Hur JS. A Study on Residence Experiences of Elderly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5):808-23.

Cho MJ, Bae JN, Suh GH, Hahm BJ, Kim JK, Lee DW, Kang MH. Valid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GDS)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9:48-63.

Cho YM, Kwon SM.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y by in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20;26(4):47-72.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Choi HJ. ‘Aging in Place’ Experience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Urban Areas :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19.

Choi HY, Ju HJ.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neighborhood environment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local health poli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the young-old and the old-old.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022;26:247-71.

Choi S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the aging era and financial policy for senior care.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2022;308.

Choo SH. Factors Affecting Desired Residential Type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Busan: Pukyong University; 2021.

Chung HY. Determinants of the long-term care expenditures and institutional care uti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21;27(2):73-94.

de Medeiros MMD, Carletti TM, Magno MB, Maia LC, Cavalcanti YW, Rodrigues-Garcia RCM. Does the institutionalization influence elderly’s quality of lif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geriatrics 2020;20(1):1-25.

Han EJ, Hwang RI, Lee JS. Factors Related to Nursing Home Institutionalization of Elderly using Home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6;30:512-25.

Han EJ, Kang IO, Kwon JH. A study of determinants 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institutionalization of elderly using home care services. J Korean Gerontol Soc 2011;31(2):259-76.

Han GH, Choi Hk, An JS, Kim JH. Gerontology. 1st ed. Seoul: Shinjeong, 2019.

Han JW, Kim TH, Jhoo JH, Park JH, Kim JL, Ryu SH, Moon SW, Choo IH, Lee DW, Yoon JC. A normative study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and its short form (SMMSE-DS) in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2010:27-37.

Han NK, Chung WJ, Kim RE, Lim SG, Park CY. Effe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on Medical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3;23(2):132-44.

Hong JY.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by A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2;22:420-30.

Jansson AH, Muurinen S, Savikko N, Soini H, Suominen MM, Kautiainen H, Pitkälä KH. Loneliness in Nursing Homes and Assisted Living Facilities: Prevalence, Associated Factors and Prognosis. The Journal of Nursing Home Research Sciences 2017.

Jeon YJ.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with Medical use characteristic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A Comparison between Young-old and Old-old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22.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Joo BH. Trends of Elderly Housing Policy in Germany: Focusing on Ageing in Place Policy.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2019;9(0):68-77.

Jung CW, Han CK. The effect of Housing related characteristics on Aging in place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21;41(3):373-96.

Kang EJ, Kang HJ.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awareness and intensions of use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mong the aged in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05;28:255-94.

Kang EN, Joo BH, Lee JC, Bae BW. A plan to reorganize the senior housing policy in response to super-aged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Kang JA, Kang SL.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the Early and Late Stag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1;12(5):287-301.

Kim HJ, Son YJ, Jung HJ, Hwang IY, Kim MY, Park KH, Lee SH. Depression among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cusing on the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2018;8(3):455-61.

Kim JP. A Study of Self-determination of Dwelling Elders in Nursing Home on Their Admission / Discharge Process.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2020;64:153-79.

Kim MI, Kim SJ, Kim JP. A Study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Depression of Pre and Old Age Group.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7;28:285-307.

Kim SJ, Chae JS, Nam SI. Changes in the Equity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Based on Coulter Index Differences for the Years 2000, 2008, and 2015.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022;34(1):91-107.

Kim SY, Moon KJ, Oh CO. Searching for Policy Orientation By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Aging in Place in the Aging Community.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015;23:137-64.

Kim YW, Song KM, Jeong JW. A Study on the Important Factors of Physical Aging Friendly City Environment for AIP(Aging in Place) in Rural Areas 50+ Generations. The Journal of Long Term Care 2021;9(2):103-21.

Kim YY, Yoon Hy. Case study of Community care : Poilcy Implications from Japan and UK.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2018:135-68.

Kwak IS.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cisions by the super-aged on their preference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11;22(6):83-95.

Kwon OJ, Lee YM, Ha HH, Kim JY, Yeom HS. Reasons for Seniors' Aging in Place within Their Communit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14;52(3):285-9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ee GE, Bae DY. The Predisposing Factors of Admi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Charged Retirement Home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4;24:181-92.

Lee GH. Correlation of Depression with Education and Asset level in the Korean Elderly: Comparison between Young-old and Old-old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22.

Lee HJ, Lee BR.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Care of the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08a;40:55-73.

Lee HK, Lee BR. The Difference of the Need for Long-term Care Services between the Younger Aged and the Older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08b;42:7-25.

Lee IS. Main Reasons for Choosing to Stay in a Paid Elderly Residential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03;14:121-32.

Lee J-M, Lee S-Y. An Analysis on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Institutional Care Service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007;21:51-72.

Lee KH, Yong WS, You CH, Lee YJ, Chung WJ.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Function Factor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the Elderly in Korea: The 2014 and 2017 National Survey on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9;29(4):454-6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ee MA. Factors Affecting Older Persons' Expectations of Using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05;27:29-47.

Lee SH. The Subjective Expectation and the Meaning of AIP(Aging in Plac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Journal of Public Society 2017;7:135-63.

Lee SY, Lee YY, Kim SJ. Setting Social Policy Directions and Goals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Lee YJ. Inequality analysis of regional distribu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Long Term Care 2021;9:145-68.

Lee YJ, Kim HS. Analysis on the Use of Welfare Services of Elderly Long-term Care Grade Accredited and Unidentifi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9;17(11):29-37.

Lee YK. Changes in Elderly Characteristics and Policy Suggestions (1994-200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ue&Focus 2010;55(0):1-8.

Lee YK, Kang EN, Kim SJ, Byun JK. Suggestion of long-term care system reform in view of aging in place (AIP).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Lee YK, Kim S, Lim JM, Nam HJ, Hwang JY, Yi HJ, Son HS, Takeya H. Diversification of Elderly Care Needs and Development of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Nursing Home Facilit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Lim JG. A study on factors of elderly residential care service utilization for using decision tree reg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8;60(3):129-50.

Lim JM. Current status of elder abuse in Lng-term care facilities and countermeasures.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ue & Focus 2021;407.

Lini EV, Portella MR, Doring M. Factors associated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lderly: a case-control study. Revista Brasileira de Geriatria e Gerontologia 2016;19:1004-14.

Mezuk B, Ko TM, Kalesnikava VA, Jurgens D. Suicide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or transitioning to residential long-term care, 2003 to 2015. JAMA network open 2019;2(6):e195627-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a) "Providing social services centered on home and community" promoting community care in earnes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b) Live a healthy old age in the place where the elderly lived.「Community integrated care basi c」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a) Social Security Factbook 2020. Available from www.mohw.go.kr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20b)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report. 2020. Available from www.mohw.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20c)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Investigation Mannual. 2020 Available from www.mohw.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d) 2020 Dementia policy guide. 2020. Available from www.mohw.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2017. Available from www.mohw.go.k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housing survey. 2007 Available from www.molit.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and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2000.

Nam SI, Nam HJ, Lee JM, Chang CW. A Study on Moder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in Relationship between Ageing Anxiety and Depression for Young-Old and Old-Old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9;47:67-96.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1 Long term care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22. Available from www.nhis.or.kr

Paik JE. A study on the loss experiences,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of young-old and old-ol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2):403-13.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Park CJ. Determinants of Long Term Care Service types of Family Caregiv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5;70:31-51.

Park JB, Ma KR. A Study on Aging In Place and Social Relational Factors. Korea Real Estate Society 2020(58):5-21.

Park J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Safety in Urban Spaces and Aging in Place.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2019;15(1):109-20.

Park SB. Residenti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011;23:731-60.

Park S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and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in life - For the elderly in Seoul -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Seok JE, Yi GJ. Analysis on the staying at-home of the qualified recipients of Long-term care for aging in place. Health Soc Welf Rev 2017;37(4):5-42.

Seoul Welfare Foundation. Survey on the Welfare and Living condition of the Elderly in Seoul. 2020. Available from http://www.welfare.seoul.kr/

Shin SH, Park JS.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7;19(2):113-2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Shin YM. Transition from Community-Based to Institutional Long-Term Care in Korea - A Competing Risks Analysi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NHI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22;74:31-62.

Song MS, Song HJ. Factors Affecting 3~ 5 grade Beneficiaries' Preferences for Utilization of Facility Care in Long-term Care Insurance. 2018.

Statistics Korea, Elderly Statistics 2021. Available from www.kostat.go.kr

Sundström G. Aged Care and the Role of Community in Sweden.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2018;7(0):36-48.

Temkin-Greener H, Orth J, Conwell Y, Li Y. Suicidal ideation in US nursing homes: association with individual and facility factor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20;28(3):288-98.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vailable from www.un.org

Woo KH. Place experience of older adults in Island Area : Is aging in place possibl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2017:260-304.

Yim YE, Kim IT. 'Community Care' and Regional Revitalization: The Case of Jap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1;12(1):403-1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Yon Y, Ramiro-Gonzalez M, Mikton CR, Huber M, Sethi D.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in institutional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9;29(1):58-67.

Youn MH, Rhee YJ.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Admission to Nursing Home after Long-Term Care Hospital Discharge Among Home Care Services Users in Long-Term Care Insura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21;27(2):23-4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BSTRACT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intention to live in Nursing Home of the Elderly with Mobility Difficulties: Comparing the Young-Old and the Old-Old

DAHYE HONG
Dep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Backgrounds: As the aging population rapidly progresses, the importance of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However, Korean governments could not prepare a stable housing policy, and the elderly cannot satisfy their desire to spend their old age in their local community. It is evaluated as an impediment element quality of life and the policy consistency for the elderly to enter a nursing home.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policy consistency,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by analyzing traits related to the intention of the nursing home admission when old people go under mobility difficulties in Korea.

Method: This study segmented the older adults into the young-old (65-74) and the old-old (75 and above) groups. Then, it analyze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 This study selected 5,976 subjects into the young-old group and 3,941 subjects into the old-old group. This study conducted Rao-Scott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and Survey logistic regression which reflects complex sampl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to reside in a nursing home when the elders suffer from mobility difficulties. It utilized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nited States) for every analysis and it set significance level as 5%.

Results: 30.4% of the young-old group and 34.7% of the old-old group showed intention to reside in a nursing home if they suffer from mobility difficulties, and they showed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intention of nursing home admission. In Model 3, which adjusted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both the young-old and the old-old commonly have shown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to reside in a nursing home and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residential area, living with children, cognitive function, and housing satisfaction, when they have mobility difficulties. Compared with normal cognitive function group, the odds ratio of cognitive dysfunction group was 1.29(95% CI=1.12-1.48) for the young-old and 1.29(95% CI=1.07-1.54) for old-old. There were significant elements only for the young old, which are sex, annual household income, recipient of social security, religion, caregiver, payer of living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expenses,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health status satisfaction, residential suitability, and constraint of going out. The odds ratio of who have a care giver and dependent on daily life was 0.54(95% CI=0.31-0.94)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have a care giver.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elements only for the old-old, which are long-term care insurance level, convalescent hospital admission status, and housing occupancy types. The odds ratio of who are out of long-term insurance grade was 1.80(95% CI=1.13-2.89) compared to those who have long-term insurance grade.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it is necessary that distinguished policies for each age group have to be prepared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intention of nursing home admission when the elderly have mobility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oviding services that can assist in daily life for the young-old who do not have a care giver and dependent on daily life. It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appropriat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old-old who are ou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so that they can stay longer in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services that can increase housing satisfaction for both the young-old and old-old and provide cognitive decline prevention programs and a safe environment to live in the community, even in the case of cognitive dysfunction.

Keywords: The Young Old, The Old Old, Nursing Home, Policy for The Elderly, Housing Policy,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